

SPRING 2009

또 하나의 나 우리

www.plankorea.or.kr



Plan
Be a part of it



주원자님께.

안녕하세요, 플랜 가족 여러분. 플랜코리아 홍보대사 텔런트 김성령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겨우내 얼어있던 마음까지 녹여줄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여러 가지 우울한 소식들로 유독 추웠던 지난겨울 때문인지 올해는 유난히 봄이 더 기다려졌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라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연일 좋지 않은 뉴스에 마음이 시린 날이어서 그랬던지 더욱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 글귀를 보는 순간, 제가 후원하는 아이, 베트남에 살고 있는 너무 예쁜 나의 딸 씨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씨들의 환한 미소를 생각하니 제 마음에도 금방 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들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기꺼이 나눔의 삶을 선택하신 우리 플랜 가족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은 곧 모두의 마음에 봄을 가져다주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차가운 세상도, 겨우내 지친 우리의 마음도 따뜻하게 녹여줄 희망의 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넓은 세상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플랜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3월부터 시작된 SBS 드라마 자영고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홍보대사 김성령

Handwritten signature of Kim Seung-ryeong



'또 하나의 나 우리'는 플랜코리아가 전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입니다.

플랜은 70년 전통의 국제아동후원단체로 UN 경제사회 이사회의 협의기구입니다. 세계 최대 개발 원조 단체인 플랜은 비종교, 비정치, 비정부의 국제기구로서 영국에 국제본부를 두고 있으며 17개국을 후원으로 하여 전세계 49개 저개발국의 1백45만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Vol. 46

나 우리

www.plankorea.or.kr

CONTENTS

02 행복을 주는 사람 • 홍보대사 텔런트 김 성 령

04 후원자 블로그 • 후원자 서 정 은
- 화니맘의 좌충우돌 육아정복기

06 지구촌을 간다 • (주)EXR KOREA
- 여기는 EXR 프로그레시브 스쿨입니다!

08 알려드립니다
- 플랜의 선물 정책이 변경됩니다.

나눔의 행복

10 10대 작가들의 사진축제 포토페어 'Made in 17'

11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의 배우 '아닐 카푸르'의 편지

12 우리는 플랜 가족 • 후원자 오 승 수
- 다시 시작된 아쉬움, 다음 만남을 기다리며

14 플랜 지구촌 꿈터 • (주)더 베이직하우스
- 베이직하우스 생명의 우물 프로젝트 완공을 기념하며...

16 플랜 가족 • 후원자 유경희, 양희강

플랜 NEWS

18 플랜 코리아 소식

19 플랜 지구촌 소식

20 희망의 선물 - THE 좋은선물

21 플랜과 함께하는 분들
• 모금함 • 특별후원금 • 특별후원자 • 신규 어린이 결연 후원자



화니맘의 좌충우돌 육아정복기

<http://blog.naver.com/stjie>

< 블로그나 카페, 미니홈피의 소개를 원하시는 후원자님께서는 02-790-54360이나 kno@plankroe.or.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도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얼마 전 네이버에서 플랜코리아를 검색하다가

블로그란에 올라온 '플랜코리아와 함께 기부문화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후원자님은 어떤 분인지, 또 어떤 마음으로 후원을 하게 되신 분인지 궁금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클릭을 하자마자 보이는 아기자기한 디자인이 왠지 아기 엄마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상대로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글 아래에는 아이들 사진이 가득합니다. 딱 보아도 의젓해 보이는 첫째 정환이, 그리고 귀여운 얼굴에 개구진 미소가 사랑스러운 둘째 태환이. 두 화니의 맘인 서정은 후원자님의 블로그에는 후원자님의 일상과 유용한 정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오픈캐스터로도 활동 중이신 서정은 후원자님의 블로그에는 두 아이들과 함께한 예쁜 사진들뿐만 아니라 각종 육아정보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블로그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두어 방문자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수집한 자료들에 덧붙인 서정은 후원자님의 유쾌한 코멘트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직접 올려주시는 요리 정보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도 덧붙여 주셨어요. 육아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제품의 사용후기와 북 리뷰처럼 어른들에게 유용한 정보도 가득하답니다.

한 번씩 방문하셔서 좋은 정보도 얻으시고 플랜코리아와 관련된 소식들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를 시작하면서 올려주시는 서정은 후원자님의 글을 붙입니다. 서정은 후원자님, 앞으로도 계속 정환이, 태환이, 그리고 플랜코리아의 이야기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



화니맘, 서정은 후원자님은...

듬직한 남편과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정환이, 태환이 두 아이와 인천에서 알콩달콩 살고 계신 알뜰살뜰 주부십니다. 둘째 태환이의 치료비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더 어려운 아이를 돕기 위해 플랜코리아로 연락을 주신 서정은 후원자님은 캄보디아 시엠립에 사는 Sievong Loch라는 잘생긴 남자아이의 든든한 엄마가 되어주셨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서정은 후원자님과 세 아들들의 이야기!! 많이 기대해주세요!



플랜코리아와 함께 기부문화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큰 애를 키우면서는 기부라는 건 꿈도 못 꿔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살림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지금도 먹고 살기 남아도는 살림은 아닙니다. 다만 제 심경의 변화 때문이지요.

태환이가 많이 아프다보니 아픈 다른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태환이가 재빨리 치료 처방이 떨어지고 뇌 MRI에 이런저런 검사로 힘들 즈음 기부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솔직히, 모든 걸 다 털어놓자면 그저 순수한 기부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덕을 베풀면 내 새끼한테 좋은 영향으로 오지 않을까...', '나중에 태환이한테 복이 오지 않을까...' 하는 나쁜 의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참 미안했습니다. 제가 쓰지 않는 유아용품을 드림하게 시작했습니다. 태환이가 특수분유를 먹어야해서 얼마 쓰지 못한 유축기를 우리 집에 오시던 산후도우미 분께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유축기 사기 어려운 산모가 있다면 다시라도 주시라고. 태환이한테 들어온 선물 중 필요 없는 것이나 중복된 것들을 바꿔서 쓰지 않고 드림하고... 그러다보니 드림도 중독이 되더군요.

그리고 이제 플랜코리아를 통해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3만원입니다. 전 머리를 굴렸습니다. 3만원이면 태환이 병원 가는 차비로만 일주일 치입니다. 그 일주일 치 차비를 포기하고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제 오랜 계획인 입양의 전초석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남에게 베푸는 생각을 넓혀가려 합니다.

모두가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때 이따하고 배고파하는 누군가를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 화니맘 서정은



캄보디아에 전해진 EXR의 글로벌 사랑, 여기는 EXR 프로그레시브 스쿨입니다!

2008년 12월 12일, EXR(대표이사 민복기)의 캄보디아 EXR 프로그레시브 스쿨(Progressive School)이 완공식을 가졌다. EXR 프로그레시브 스쿨은 EXR이 플랜코리아와 함께 저개발국 어린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건립의 일환으로 1년6개월 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캄보디아에 기증한 학교이다. 6개 교실이 있는 EXR 프로그레시브 스쿨의 개교로 380여 명의 마을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완공식에는 학교 학생들과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교육부 관계자와 지방 정부 임원 등이 참석하여 새 학교의 개교를 축하했다. 이날 완공식에 참가한 EXR 박창수 상무는 “초등학교 건립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EXR 프로그레시브 스쿨에서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R 프로그레시브 스쿨이 생기기 전까지 스나 칸달 마을에는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먼 마을에 있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 약 1시간 정도 걸어 다녔다. 그러나 EXR 프로그레시브 스쿨이 생기면서 아이들은 5분 만에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교장인 도웅 시나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하는 나이임에도 장거리 통학을 이유로 학교에 다니기를 꺼려했습니다.



이제 가까운 거리에 새로운 학교가 생긴 만큼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완공식 행사 후에는 EXR 직원들이 준비한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학생들의 사진을 찍어 아이들과 함께 교실을 꾸미고 바자회 및 EXR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이 직접 기증한 마일리지 수익금으로 준비한 티셔츠와 학용품 등 뜻 깊은 선물을 전달하였다.

한편 EXR은 학교 건립에 그치지 않고 1월 9일부터 EXR 프로그레시브 스쿨 전시회를 열고 EXR 프로그레시브 스쿨 도서관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진행 중이다. 학교는 지어졌지만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부족하고 방과 후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내에 도서관을 만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현재 EXR 타워 1층 카페테리아에서 진행 중인 전시회는 EXR 프로그레시브 스쿨 학생들의 사진뿐만 아니라 약정식부터 공사, 완공까지의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프로그레시브 스쿨 지원을 위해 진행했던 바자회 등 각종 행사와 이번 방문기간 동안 촬영한 영상은 학교 건립을 위한 EXR의 노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카페테리아를 이용할 때 사원증을 찍으면 자동으로 기부금이 적립되게 하고 있으며 판매수익금이 도서관 마련 기금으로 기부

되는 ‘희망세트(커피+쿠키)’를 판매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월부터는 EXR 프로그레시브 스쿨 학생들과 사내 직원들의 결연을 추진하고 있으며 봉사단도 모집하고 있다. 앞으로도 EXR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학교의 건립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아이들이 교육의 권리를 찾고 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건립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



EXR 프로그레시브 스쿨을 다녀왔습니다!

수도 프놈펜에서 약 4시간 가량 비포장도로의 흙길을 달려 도착한 캄퐁창. 마을 깊은 곳에 위치한 EXR 프로그레시브 스쿨에 들어서자 크고 반짝이는 눈망울의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뛰어나와 반갑게 맞이해주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수줍게 웃어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자회 수익금으로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티셔츠를 준비해 따뜻한 사랑을 전했고 아이들의 모습을 폴라로이드 사진에 담아 함께 교실을 꾸몄습니다. 비록 많은 안 통했지만 작은 선물 하나에도 감사해하는 아이들과 더 많이 준비해오지 못해 미안한 우리의 마음은 서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수 탄 코코넛 열매를 한 아름 받아 들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가 준비한 더 큰 사랑과 그 사랑을 전할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사내 카페테리아에 상영되고 있는 영상을 보면 순수한 아이들이 기억납니다.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의 행복을 알게 해준 아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어룬추란!

· EXR BM팀 임 민 경 주임





플랜의 선물 정책이 변경됩니다.

후원자님께서 아동을 위해 준비하셨던 선물에 대한 플랜의 정책이 변경됩니다.

그 동안 후원자님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셨던 선물은 받는 아동뿐만 아니라 보내는 후원자님의 마음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현지에서 후원 아동 간의 관계 및 선물 전달에 따른 업무 과부하와 후원자님의 운송료 부담으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전 세계 49개국의 저개발국을 후원하는 17개의 플랜 후원국은 더 나은 아동 후원을 위하여 선물 정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플랜의 선물 정책은 왜 바뀌나요?

후원자님께서 보내시는 편지, 사진, 선물 등은 후원자님과 후원 아동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편지는 후원자님의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글을 배울 수 있는 큰 교육자료도 됩니다.

또한 멀리 있는 후원자님을 느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시는 선물도 아동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후원자에게 선물을 받는 어린이는 후원아동 중 10%를 넘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선물을 받는 아동보다 받지 못하는 아동이 더 많아 현지에서는 아동들의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위화감 등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플랜은 CCCD(Child Centered Community Development : 아동 중심지역개발)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아동들 사이의 소외감, 위화감 등이 사업 진행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매년 선물을 받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매년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선물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지역 개발에 참여하던 것에도 관심을 잃게 되요" • 케냐의 폴(18세)

"며칠 전에 선물을 받은 한 친구는 자신이 받은 선물을 자랑했어요. 부러워하는 다른 친구들에게 선물을 나눠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것 저것 시키더니 그냥 집에 가 버렸어요. 그 친구와 학교에서 만나는 것이 싫어져 학교에 가기 싫어졌어요." • 짐바브웨의 음바웨(14세)



CCCD(Child Centered Community Development : 아동 중심지역개발)는 무엇인가요?

CCCD는 플랜 모든 사업의 기본입니다. 플랜의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동과 함께 활동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지역을 이끌어 나갈 아동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플랜은 각 지역별로 아동모임을 만들어 아동들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아 의견을 나누고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물정책이 변경된 후, 편지는 보낼 수 있나요?

선물정책이 변경되더라도 후원자님께서 후원아동에게 보내시던 편지, 사진, 엽서, 그림 등은 계속 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시는 편지를 통해 후원자님의 소식을 전하거나, 아동을 격려하시는 것은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께서 아동의 편지와 사진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아동들도 후원자님의 편지와 사진을 기다립니다.

또한 플랜코리아는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선물할 수 있는 **THE좋은선물**을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09년부터 변경되는 선물 정책은 **5월 31일 선물 발송을 마지막으로 중단**될 예정입니다.

후원자님의 양해 부탁 드리며, 혹시 보내고자 하셨던 선물이 있으시다면 5월 전에 발송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5월 이후 도착하는 선물은 후원자님께 반송될 예정입니다.

항상 플랜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변경되는 선물정책에도 후원자님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후원자님의 후원을 통해 한 아동뿐만 아니라 한 마을의 아동이 후원을 받고, 한 지역이 발전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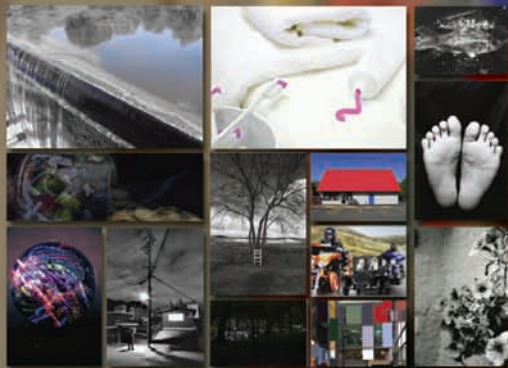
13 teenage photographers, 2009 _



10대 작가들의 사진축제 포토페어 'Made in 17'

지난 2월 4일부터 15일까지 인사동 쌈지길 쌈지갤러리에서 개최된 포토페어 'Made in 17'의 전시 작품 판매 수익금이 전액 플랜코리야로 기부되었다. 아트앤펍토리에서 주최, 주관하고 쌈지길과 유라섹이 후원, 플랜코리야가 협찬한 이번 전시회는 참가한 작가들이 모두 10대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했다.

이번 포토페어 'Made in 17'은 '카메라를 든 전국 10대들의 축제 한마당'이라는 주제처럼 10대들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담은 다양한 사진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10대들의 눈을 통해 관찰되고 새롭게 해석된 세상의 이미지는 이미 2008 대구사진비엔날레 및 2008 서울국제사진페스티벌에서도 소개되어 전시된 바 있다. 이번 포토페어는 사진에 열정을 지닌 10대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동시에 49개 저개발국 어린이들의 꿈을 후원하는 기회가 되었다. 



저는 2006년부터 플랜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구걸을 하거나 노동을 착취당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마을에서는 가족과 이웃들이 어린 아이들을 밀매하여 주요수입원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우리는 바랏푸르의 흥등가에 살고 있는 라메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들을 성매매에 종사시켰고 그것이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수단이며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플랜 스텝들이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막내딸인 락히를 성매매 현장에 팔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플랜 스텝들은 라메쉬를 설득하여 락히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락히는 플랜 후원자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게 되었고 락히의

삶도 새로운 희망과 행복으로
채워졌습니다.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의
배우 '아닐 카푸르'의 편지

하지만 락히는 운이 좋은
편입니다. 여전히 많은

아이들은 학대와 노동력 착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들의 권리를 짓밟는 사람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플랜의 활동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한 번 더 이 일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모두 플랜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저 한 사람의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플랜의 활동들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당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아이들의 잃어버린 유년시절을 되찾게 해줄 거라 믿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플랜의 활동에 기부해 주십시오.

마음을 담아 · 아닐 카푸르 드림



아카데미 8개 부문, 골든글로브 4개 부문 수상

슬럼독 밀리어네어(Slumdog Millionaire)

인도 뭄바이의 빈민가에 사는 18세의 고아소년 자말 말리크. 그는 상금으로 2천만 루피가 걸린 인도 최대의 퀴즈쇼 '누가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하는가?'에 참가하여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할 만한 성적을 내고 최종 우승에서 한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어떻게 길거리 소년이 이처럼 많이 알고 있을 수 있나'라는 의문을 가진 경찰은 그를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자말은 빈민가에서 살아온 자기 형제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각각의 이야기는 퀴즈쇼의 질문들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열쇠를 제 공해왔음이 밝혀지는데...





네 번째 방문하는, 이제는 익숙한 방글라데시의 다카 공항! 1시 45분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하고 나오는데 공항직원이 가방 세 개에 표시를 하고는 세금을 내라고 했다. 방문하는 마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선물이 그의 눈에는 장사꾼의 물품으로 보여졌나보다. 몇 번을 설명했지만 세금을 내라는 이야기만 계속 했다. 결국 세금을 내고서야 공항을 빠져 나와 숙소로 갈 수 있었다.

프로산토를 만나러 가기 전, 나는 며칠 동안 다카에 머무르며 방문 준비를 했다. 문구점에 들러 마을 아이들에게 줄 선물로 세 종류의 공책을 주문하고 프로산토의 책상을 만들 나무도 주문했다.

다시 시작된 **이쉬움**, 다음 **만남**을 기다리며...

· 후원자 오 승 수



볼라이 바자르 마을을 다시 방문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지만 사람들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만으로도 환한 마을이다.

드디어 방문 전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8시 30분에 출발했지만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한 시간 정도 지체되어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목적지인 디나즈푸르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마중 나온 플랜 담당자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리샤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다. 숙소 도착 후 음악소리가 들리기에 소리에 이끌려 가보니 숙소 뒤편에 타블라와 하모니움을 연주하며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노래를 배워서 함께 불러보고 느낌이 좋은 노래는 제목을 적어 두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차를 타고 플랜의 지역 사무실에 도착했다. 작년 방문했을 때는 플랜 사무실에서 공연이 있었다. 그때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기억에 남았던 아이가 있었는데 우연히 이번에도 사무실에서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었다. 노래를 청하자 아이는 흔쾌히 다시 한 번 노래를 불러 주었다. 뜻은 모르지만 매우 경쾌한 노래가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

사무실을 나와 2005년 처음 방문했을 때 들렀던 볼라이 바자르 마을을 다시 방문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지만 사람들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만으로도 환한 마을이다. 대나무로 방글라데시 악기인 바시를 두 개 만들어 바시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선물하려고 가져갔더니 마을에서 단 한 명만이 바시를 연주할 수 있단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음 방문 때까지 꼭 제자를 두라고 이



프로산토 가족과 함께



볼라이 바자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야기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린다.

마을에서의 둘째 날 오전, 유치원에 들러 아이들을 만났다. 총 21명의 유치원생들이 귀여운 율동과 함께 노래를 불러주었다. 나도 아이들에게 미리 연습해 둔 방글라데시 노래를 불러 주었다. 대금 연주와 함께 내 노래를 들은 아이들은 신기한 듯 쳐다보며 즐거워하였다.

유치원에서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프로산토 집으로 이동했다. 기말시험을 마치고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프로산토를 드디어 만날 수 있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프로산토의 부모님과 이웃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그간의 안부를 물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프로산토의 말로는 작년에 설치해 준 태양전지가 비오는 날이나 번개가 칠 때는 등이 깜빡인다고 해서 상태를 점검해주었다. 작년에 심은 옥수수의 상태를 묻자 집 앞에 심었던 것들은 조금 자라다가 죽었고 다른 곳에 심은 것들은 완전히 열리기 전에 마을 아이들이 맛있다고 다 먹어버려 씨앗이 없다고 했다. 맛있는 옥수수를 매년 먹을 수 있게 잘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아쉬웠다.

이번 방문에서는 프로산토에게 책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 방글라데시에 도착했을 때부터 좋은 나무를 구하려고 돌아다녔다. 프로산토에게 가장 멋진 책상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하나의 과정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준비한 나무를 가지

고 책상을 조립하고 사포 마감까지 끝내고나자 금세 날이 어두워져서 마을을 나왔다.

방문의 마지막 날, 다시 마을로 가서 어제 마무리 못한 책상 만들기에 집중했다. 1차 페인트칠을 마치고 페인트가 마르는 동안 동네 사람들과 함께 배구를 했다. 열심히 뛰고 난 후, 어젯밤 준비한 식재료를 이용하여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준비했다. 함께 뛰고 함께 준비한 식사까지 하니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다시 한 번 페인트칠을 했다.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해가 기울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한 번 더 칠하라며 프로산토의 아버지에게 남은 페인트를 건넸다. 시험 중인 프로산토에게는 남은 시험도 잘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프로산토 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나자 가족들이 나에게 엑따라(한 줄짜리 악기-장난감)를 선물해 주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마을을 떠났다.

숙소에 돌아와 짐을 정리해 보니 커다란 나의 가방이 텅 비었다. 한국에서 올 때부터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비어있는 가방을 보니 방글라데시를 떠나야 할 시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다시 방문하겠다는 말은 쉽게 했지만 내년에도 갈 수 있을지는 아직 고민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벌써부터 나의 머릿속에는 다음 방문에 하고 싶은 일들이 떠오른다. 

캄보디아에서의 따뜻한 겨울, 베이직하우스의 생명의 우물 프로젝트 완공을 기념하며...



1월 13일, 겨울코트 속에 반팔티셔츠를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것저것 아이들이 좋아할 것들을 챙기다보니 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행기 연착으로 숙소에도 도착하니 새벽 1시가 넘었지만 가져온 선물을 나르는 것도, 정리하는 것도 마냥 신이 납니다.

1월 14일, 캄퐁참으로 이동하는 길. 이른 시간이지만 도로가 붐빍니다. 오토바이 한 대에 네 가족이 타고 가는 모습, 트럭 높이보다 높게 실은 짐들, 그 위에 올라탄 사람들까지.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캄보디아에 왔음을 다시금 실감하게 합니다. 곧 비포장도로에 접어들어 차가 덜컹거리고 드넓은 평지가 보이자 아이들을 만날 시간이 다가옴을 짐작합니다.

이번 방문은 베이직하우스의 '캄보디아 생명의 우물 프로젝트'로 캄퐁참 지역에 건립된 15개 우물의 완공을 기념하고 아이들에게 예쁜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비가 많이 오는 캄보디아에서 물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들 의아한 반응을 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깨끗한 식수가 없을 뿐, 물 부족 국가는 아닙니다. 때문에 플랜이 만드는 우물은 깨끗한 지하수가 있는 곳까지 시추작업을 하여 핸드펌프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한 현지직원 보라의 말에 따르면 이 마을은 물의 산성도가 높아 아이들의 건강에 적합하지 않아 계속 다른 곳을 뚫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15곳 모두 수질검사를 통과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드디어 첫 번째 마을인 Angkor Knong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

두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한 티셔츠를 입혀 주고 풍선과 사탕도 나누어 줬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많아서 풍선을 잘 못 불기에 수십 개의 풍선을 불다보니 불이 얼얼합니다. 풍선을 부는 표정이 웃긴지 계속 웃던 아이들이 감사의 뜻으로 노래를 불러줍니다. 이장님도 흥이나 추임새를 넣고 보라도 드럼통을 가져와 즉석에서 반주를 넣습니다. 무슨 가사인지 몰라도 신이 납니다. 어느덧 아이들의 손에 풍선이 다 쥐어지자 준비한 또 다른 선물,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처음 보는 카메라 앞에서 경직되었던 아이들이 '함암(웃어요)' 하자 수줍게 웃습니다. 곧 종이에 선명하게 나오는 자신의 얼굴에 신기해합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첫 번째 만남을 마쳤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하나의 우물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들 신기하게 바라보던 아이들도 '썩서바이' 인사 한 마디에 마음을 열어줍니다. 이번에도 사탕과 풍선은 인기입니다. 이 마을에는 첫 번째 마을보다는 조금 적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준비해간 사탕이 넉넉해서 어른들께도 하나씩 드렸더니 너무 좋아합니다. 폴라로이드 필름도 여유가 있어 할머니들께 한 장씩 찍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전문 사진사가 아니라 솜씨는 별로지만 그래도 한 장 한 장 마음을 담아 정성껏 찍었습니다. 평생 처음 가져보시는 이 사진이 꼭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15일, 우리는 '윤은혜 우물'이 있는 Pothipreuk Keut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베이직하우스가 지원한 우물 15개의 동판에는 플랜과 베이직하우스 외에도 이번 캠페인을 지원해준 연예인들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가장 먼저 완성된 '윤은혜 우물'은 아이들이 사용하기 쉽게 힘이 많이 드는 펌프 방식 대신, 손잡이를 돌리면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물 앞에는 어제 방문한 두 마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제 차 안에서 연습한 덕분에 이제 크게 메르어로 간단한 인사와 소개 정도는 거뜬히 해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과 금방 친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제스처도 따라하고 직접 우물 사용법도 가르쳐주었습니다. 서로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이번 방문의 마지막 마을입니다. 'SS501 우물'이 설치된 이곳은 마지막 마을이라 아쉬운 마음에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어집니다. 풍선도 더 크게 불어보고 아이들을 안아도 보고 어설피지만 크메르어로 대화도 나누어 보지만 여전히

아쉽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곳이 많이 생각날 것 같다고 하자 손을 잡으며 꼭 다시 방문해 달라는 할머니의 말씀에 팬스레 눈물이 핑 돌습니다. 애써 웃으며 돌아서는데 아이들이 와서 꼭 안겼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아가야 하는 시간.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헤어질 때에는 인사 대신 두 손 모아 '여런'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했지만 오히려 너무 큰 선물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우리의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생각해보면 아이들에게 나누어준 선물은 그리 큰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우리도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니 그 가치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물한 티셔츠를 입고 축구공과 풍선을 가지고 놀고 있을 예쁜 아이들이 이제는 깨끗한 물을 마시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합니다. 더불어 먼 훗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린 시절을 추억할 때 짧은 이번 만남이 우리가 선물한 사탕처럼 달달한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Plan Family Interview

· 후원자유 경 희, 양 희 강

< 따뜻한 후원이야기를 들려주실 후원자님께서는 02-790-5436이나 kno@plankorea.or.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인터뷰를 해주신 후원자님께는 인터뷰 사진을 예쁜 액자에 넣어 보내드립니다. >

플랜 사무실에 유독 웃음이 넘치는 날이 있다. 바로 플랜코리아의 귀염둥이 희강이가 사무실을 방문하는 날이다. 엄마인 유경희 후원자의 손을 잡고 사무실을 찾는 희강이 역시 사무봉사자이다.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해 봉사활동을 잠시 쉬는 희강이와 플랜코리아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자원봉사자이신 유경희 후원자님을 특별히 희강이의 집에서 만날 수 있었다.



어떻게 후원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어느 엄마들이 다 그렇듯, 저도 희강이를 키우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희강이의 행복을 가장 크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잘 키워서 희강이 혼자 행복하다고 아이가 진정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희강이에게 이 세상에는 희강이랑 같이 자라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고, 그 중에서는 어려운 친구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던 차에 방송을 통해서 본 '플랜'이라는 단체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하게 되었죠. 제가 아들만 하나 있으니 이왕이면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렇게 베트남에 살고 있는 느구엔이라는 예쁜 여자아이를 후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니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네요.



후원을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세요?

느구엔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느구엔의 편지로 들었는데 놀랐고 마음이 먹먹했어요. 홍수 때 물에 휩쓸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느구엔의 동생이 많이 어린데다 어머니도 나이가 많지 않은 터라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부재가 더욱 걱정이 됐어요. 그 어려운 나라에서 남편 없이 어린 두 아이를 키워야하는 느구엔 어머니를 생각하니 생각만으로도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소식을 전해서 느구엔의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했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게 전부라는 생각에 더 자주 편지를 보냈어요. 먼 나라의 누군가가 이렇게 널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느구엔의 어머니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내가 끝까지 후원할 테니 열심히 사시라고 위로의 편지를 보냈죠. 지금도 기념일에는 꼭 잊지 않고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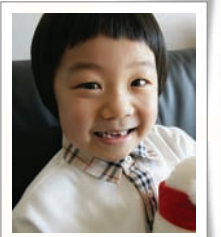
현재 플랜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계신데 봉사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항상 나중에 내가 그만두거나 은퇴하면 내 능력을 좋은 곳에 쓰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시간이 없었죠. 이제는 희강이만 키우고 있으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봉사활동을 생각하던 차에 내가 후원을 하는 곳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플랜에 전화를 했어요.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서 바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긴 하지만 재미도 있고 내가 후원 외의 또 다른 방법으로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희강이도 시간이 맞으면 꼭 데리고 가는데 그건 봉사라는 걸 직접 보여주고 싶어서예요. 아직 어려서 사무실에서 하는 일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긴 하지만요. 그래도 희강이가 이런 좋은 일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친근하게 느끼고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느구엔은 제 조그만 사랑의 보탬으로 교육도 잘 받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희강이가 더 크면 꼭 같이 만나러 가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아이도 한 명 더 후원하고 싶은데 아직 어디로 할지 결정을 못했네요. 우리 희강이도 아직은 어려서 잘 모르지만 세상에는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항상 생각하면 좋겠어요. 나중에 희강이가 자신이 가진 것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구요. 참, 플랜코리아를 통해 같은 지역 아이들을 후원하는 후원자들끼리 모여서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후원자라면 대부분 후원아동을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좋겠어요. 그럼 제 후원아동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플랜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아쉬워요. 종교적인 색채도 없고 광고를 하지 않으니 그럴 수 있지만 후원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들은 더 많이 알리고 싶거든요. 도와주고 싶지만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앞으로는 플랜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



플랜코리아 소식

“내가 둔 건 3만원뿐인데 아이는 사랑을 뒀어요”

지난 12월 9일, 동양일보를 통해 플랜코리아 조영미, 전명희 후원자의 후원스토리가 소개되었다. 조영미 후원자는 17년 전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월 30여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오고 있다. 그런 그가 2008년 1월부터 플랜코리아를 통해 네팔의 암사나를 후원하고 있다. 조영미 후원자는 후원을 통해 자신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힘을 얻고 있다며 후원금에 보태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네를 돌며 폐품을 수집하고 있다. 2004년 뇌성마비 1급이던 딸을 잃고 2년 후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 절망에 빠져있던 전명희 후원자 역시 후원을 통해 세상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이 변했다고 한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전명희 후원자는 생활보호대상자이지만 멀리 인도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수של라의 사랑 덕분에 자신이 살고 있다며 2008년 5월부터 필리핀의 제럴드도 후원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후원을 하고 있는 두 후원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운재 스쿨퍼스트 캠페인

플랜코리아 홍보대사 이운재 선수와 함께 하는 스쿨퍼스트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열악한 경제상황과 불안정한 정치상황 때문에 교육의 권리를 찾지 못하던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이운재 선수의 호소에 많은 후원자들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더 많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운재 선수의 바람대로 많은 후원자들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기로 하였다. 한편 플랜코리아는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12월까지 캠페인에게 동참해준 후원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명을 뽑아 이운재 선수의 사인볼을 발송하였다. 캠페인은 끝났지만 아직도 교육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플랜코리아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제1회 플랜코리아 후원 수기 공모전

지난 2월 12일부터 제1회 플랜코리아 후원 수기 공모전이 진행되었다. 플랜을 통해 인연을 맺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자랑부터 가족, 친구들과 함께한 후원 이야기, 기부를 통해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 등 후원자들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모였다. 3월 15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3월 말 홈페이지를 통해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작(1명)은 플랜코리아의 해외 사업장 방문의 기회를 얻게 되며 우수작(2명)에는 아이리버 DMB를, 우량작(5명)에는 아이리버 MP3를 증정한다. 기타 참여해준 후원자들에게도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증정한다. 이번 제1회 플랜코리아 후원 수기 공모전에 제출된 원고들은 이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플랜 지구촌 소식

[플랜 콜롬비아] 플랜 콜롬비아를 방문한 저명인사들

영국 뉴스 앵커 존 스노우와 BBC 워싱턴 특파원 맷 프레이가 세계적인 문학 축제인 'Hay festival' 참석 차 플랜 콜롬비아의 까르타헤나(Cartagena) 지역을 방문하고 플랜의 활동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플랜은 3년 전부터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Hay festival과 제휴해오고 있다. 존과 맷은 아동학대, 성폭력, 성매매 관광에 노출되어 있는 콜롬비아 어린이들의 생활환경 실태와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플랜의 노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까르타헤나 지역 방문 후, 두 사람은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 맞서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한편, 스페인 왕녀인 엘레나 데 보르본과 콜롬비아의 영부인 리나 모레노도 지난 2월 14일, 까르타헤나 지역 중 가장 낙후된 마을인 엘 뽀존(El Pozon)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을 방문하여 동화를 읽어주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들려주었다.



[플랜 인도] 영화 출연료를 전액 기부한 플랜 인도의 홍보대사

2009년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인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의 배우 아닐 카푸르가 그의 영화 출연료 전액을 플랜 인도의 출생등록 캠페인에 기부했다. 아닐 카푸르는 '슬럼독 밀리어네어'의 다른 배우들과 함께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행사와 예술품 경매에도 참여했다. 인도의 인기 배우 카푸르는 2년 전부터 플랜의 출생등록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왔다. 출생증명서는 아이들에게 공식적인 신원을 보장하여 그들이 교육, 의료시설 등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조기결혼, 어린이 인신매매, 아동 노동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플랜의 출생등록 캠페인과 아닐 카푸르의 노력으로 지난해 인도에서는 총 111,279명의 신생아가 출생신고를 하였으며, 57,420개의 출생증명서가 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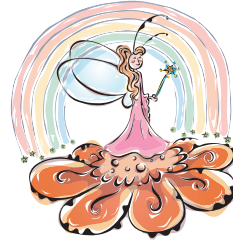


[플랜 니제르] 기근 퇴치를 위한 니제르의 곡물 저장소

플랜 니제르는 만성적인 가뭄 해소와 지역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니제르 정부와 협력하여, Dosso와 Tillaberi 지역의 86개 마을에 곡물 저장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마을 단합과 지역 주민들의 권리 신장과 함께 곡물 수확, 가격 책정, 분배 과정에서 여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곡물 저장소의 설치와 초기 비축할 곡물은 플랜에서 제공하였고, 저장소 내부 정리와 곡식 판매는 마을 여성들 중에서 선출된 운영 위원회가 맡았다. 곡물 저장소 내 곡식은 마을의 저소득층 가정이라면 누구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당제도 안에서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빈곤층을 고려하여 다음 수확 때 빌린 곡식을 상환하는 방식의 외상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곡물 저장소는 마을 전체, 특히 여성들이 멀리 다른 마을로 곡식을 사러 가는 수고를 덜어주게 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곡물 관리, 리더십 기술 향상을 통해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주고 있다.



THE 좋은 선물



저개발국 어린이와 가족,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현금으로 현지에 전달해 보다 경제적이고 지역 중심적인 방법으로 현지 개발에 도움을 주는 **7대좋은선물** 2008년 사업이 마감되었습니다.

2008년 2월부터 시작된 **가토좋은선물**은 총 14,848,930원이 모금 되었고, 사업별로는 토고 기생충 박멸 캠페인 510,000원/ 캄보디아 우물 만들기 4,900,000원/ 네팔 염소 보내기 10,576,130원/ 아시아 책과 문구 보내기 220,0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토고 기생충 박멸 캠페인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결과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시아 책과 문구 보내기 사업은 진행 중이며 현지에서 결과가 도착하는 대로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우물 만들기과 네팔 염소 보내기 사업은 모금이 마무리 된 작년 12월부터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09년 상반기 사업이 진행되어 결과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THE 좋은선물**은 모금이 완료된 이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결과는 다음 해에 보고됩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08년 **THE좋은선물**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09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08년 THE좋은선물과 함께 하신 분들...

1. 염소보내기:

심민호, 심재은, 최지림, 오산고등학교, 신금숙, 함영희, 함인호, 김동연, 김나연, 김세연, 심영철, 길방미, 박인자, 김도연, 원현초등학교 3-7, 김효선, 정금자, 최규배, 고 홍석규, 박준우(준호), 주미선, 박진형, 조가수, 이경아, 임동준, 이윤덕, 표영희, 정선희, 한보석, 정두리, 송진홍, 한은정, 전시우, 김태환, 태안건설 마린동 동호회, 정동식, 송미산, 이민경, 정희준, 전시우, 김한수, 한국IBM 소프트웨어 그룹 & 파र्ट너 사업부 / 이재학 실장 외 10명, 유윤정, 안승희, 백지연, 차춘조, 윤병규, 김정희, THMB, 조용우, 김경일, 진승연, 네이버 해피로고



2. 우물만들기: 조준행, 조인순, 이진성, 최순희, 장윤정, 권애선, 조가호, 김용균

3. 토고 기념품 박람회: 이미진, 임인숙, 박옥련, 정하나, 한보석, 이영미, 김정기, 연동원, 박종민

4. 아시아 핵과 문구 보내기:

문명화, 이충현, 이영미, 송미산, 기술사 사무소 한울, 송태훈, 한국BM소프트웨어 그룹 SI 파트너 사업부 / 이재학 실장
외 10명, 김정연, 오세욱, 신희선, 허상구

플랜과 함께하는 분들 / 모금함 · 특별후원금 · 특별후원자 · 신규 어린이 결연 후원자

특별후원금		THE 좋은선물		일반 모금함	
임하진	500,000	김경민	100,000	윤병규	50,000
노주환	2,000	김용균	300,000	이민정	50,000
현대백화점-세인트 에피엔느	1,965,184	김정기	80,000	전사우	100,000
연세대학교의료재단	63,000	김정연	20,000	정화준	50,000
강명민	200,000	김한수	100,000	조용오	50,000
서상덕	1,000	박종민	30,000	진승언	50,000
서현욱	20,000	백지연	50,000	차준호	50,000
김도은, 백현정	30,000	송태훈	30,000	한국IBM소프트웨어 그룹 SI 파트너 사업부	70,000
서경배(아모레 퍼시픽 사장)	300,000	신화선	20,000	허삼구	20,000
국특수금속㈜	1,000,000	안승희	50,000	THMB	50,000
성일중학교 고우영 외 35명	136,000	안정형	200,000		
오산고등학교 2~11	68,680	연동원	30,000		
박현미	50,000	오세욱	20,000		
		유웅정	100,000		
				삼성레포츠 센터	38,250
				정주영	25,730
				PEAI 어학원	34,000
				AGIO (정동철)	34,010
				역삼동 성당	133,030
				조선호텔	
				인천공항 일식당	45,150
				인천공항 다이닝 카페	37,350
				인천공항 푸드코트	40,250
				인천공항 한식당	116,240



특별후원자											
박영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대은	경기도	수원시	이유나	경기도	수원시	고아라	충청남도	천안시
정윤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민재	경기도	남양주시	박선영	경상남도	마산시	이근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형준	광주광역시	북구	송윤영	서울특별시	양천구	김재학	서울특별시	성북구	송기현	대전광역시	중구
이동현(삼양중고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석정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김은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진희	경기도	수원시
최재은	경상남도	창원시	민일홍	경상북도	문경시	은지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황성훈	서울특별시	은평구
김택관	광주광역시	북구	박재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박신주	대전광역시	서구	김학준	경기도	의왕시
황종구	경상북도	포항시	우대근	경상북도	문경시	오만일	경기도	안양시	남규지	경기도	고양시
양소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최서형	서울특별시	시흥시	이희형	서울특별시	마포구	송헌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지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임승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임은주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경규	경기도	고양시
박신민	경기도	이천시	이동민	경상북도	경주시	한병희	안양시	김나래	강원도	원주시	강서구
오은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김영대	부산광역시	연제구	허승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박균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남익	서울특별시	중구	정소윤	인천광역시	남구	김현철	경기도	구리시	윤석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박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준미	경기도	고양시	임병현	대구광역시	달서구	김영범	서울특별시	광진구
오현식	경기도	수원시	김성욱	울산광역시	동구	김유빈	경기도	과천시			
이윤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현숙	경기도	수원시	이영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김영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성한나	충청북도	청주시	이미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
공
표
아

참고문헌



사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1
리첸시아 B-1503호

140-210



또 하나의
www.plankorea.or.kr 나 우리

www.plankorea.or.kr

품칠하는 곳

플랜코리아가 KOICA와 함께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섭니다.



플랜코리아와 KOICA의 '세네갈 의료 보건 시스템 역량 강화 및 아동 건강 증진 사업'이 2008년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총 5개년 사업 중 첫 시작인 1차년도 사업은 2009년 9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말라리아, 결핵, 주혈흡충병 및 토양매개연충 관리를 통한 아동사망을 20% 감소
2. 임산부의 말라리아 예방 및 치료로 임산부의 사망률 20% 감소
3. 지역 내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및 질병에 대한 주민의식 향상
4. 기존 플랜의 활동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 지역발전 도모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플랜은 KOICA와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병 관리와 행동 변화를 위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5세 이하 아동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기장을 제공하고 지역의료센터에 말라리아 예방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 위생 위원회와 지역 보건 위원회, 자원봉사 의료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함께, 결핵과 에이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의 단체들과 보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결핵 직접 대응 치료 요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타액 및 검사 결과의 안전 수송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다섯째**, 세네갈에 만연한 주혈흡충병과 토양매개연충에 대한 지역주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교육 자료와 매스미디어를 활용하여 예방 교육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지역의료센터와 학교에 구제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플랜과 KOICA는 세네갈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본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KOICA
한국국제협력단